목차

04 여는 글

해외소식

05 나마스떼, 둥게스와리(인도)
둥게스와리 어머니회가 '모타하리' 어머니회를 만나고 왔어요! | 김재령

09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JTS를 통해 실현해 나가는 나의 꿈 | 배명숙

12 쭘리읍쑤어, 캄보디아
아이들 학교 지을 기회를 같게 돼 기쁩니다 | 박병수

15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슬라맛 씨앙! 나마 사야 라니 | 오성근

18 NEW 해외활동가
새 해외활동가들이 나가신다! | 편집부

국내소식

22 함께 나누는 사랑
2012년 5월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JTS 거리모금 캠페인 진행 | 최광수,편집부
새 교복과 함께 아이들의 꿈도 예쁘게 피어올랐으면 | 유정수
봄과 함께 나눔대축제에 취하다. | 편집부
봄날, 어르신과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 김영순
양평중학교 '나비'들의 캄보디아 학교짓기 프로젝트 | 편집부

36 JTS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 행복합니다. | 편집부
가정의 달 5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 한지민

나눔회원소식

39 활동터 소식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기타 • 국내

43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펴낸날 2012. 5. 14 **펴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펴냄터** JTS **도운이** 강선미, 양은지, 김옥희, 김혜원, 신정화, 이미경, 정가영, 최기진, 최양희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여는 글

봄꽃이 활짝 피었던 3, 4월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새 봄의 신호탄 같았던 봄꽃들처럼 JTS 해외사업장들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답니다. 6명의 새로운 해외자원활동가들이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의 JTS 사업장으로 파견되었거든요. JTS 5, 6월 소식지에서는 이 기운을 몰아 해외사업장 특집 기획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각 사업장에서 어린이,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어요. JTS와 함께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기대되지요? 아울러, 새로 파견된 해외자원활동가들의 목소리도 담아보았습니다. 생기발랄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국내 소식 또한 풍성합니다.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해 재능기부로 새 교복을 디자인해주신 유정수님을 만나, 나눔과 재능기부의 보람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두북 마을에서 열린 마을 어르신 잔치, 직접 제작한 소품으로 화제를 끌었던 KBS 나눔 플러스 대축제의 JTS 활동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4백 만 원이라는 큰 기부금을 모은 양평중학교 '나비' 동아리 친구들의 이야기와 JTS 홍보대사인 배우 한지민 씨의 정기후원 제안 메시지도 차례로 만나보세요.

새로운 기획과 구성으로 꽉 찬 JTS 5,6월호 소식지와 함께 개인과 가족 모두 기쁘고 건강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JTS 소식지 편집부

둥게스와리 어머니회가 '모타하리' 어머니회를 만나고 왔어요!

지금 둥게스와리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인도JTS는 이 더위를 뚫고 둥게스와리 마을 어머니회와 함께 다른 지역 어머니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비하르 주 북부의 '모티하리'라는 마을에서 어머니회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한 수 배우고자 길을 떠난 어머니회. 그 모티하리 방문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함께하고 글 쓴 이

김재령 | JTS인도 활동가

드디어 '모티하리' 어머니회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다른 일정들에 밀려서 연기되어 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4월로 견학 일정이 확정되었어요. 날짜가 결정되었으니 이제 참가자를 모집하는 일만 남은 셈인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4월은 밀 수확 철이라 둥게스와리 마을 주민 모두가 분주한 달이거든요. 농번기에 주부가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굵은 땀을 흘리며 마을개발팀 스텝들이 마을을 누벼보았지만, 참가자는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남편들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둥게스와리는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지역이라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내들의 외출이 어렵거든요.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주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됩니다. 마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에요." 일일이 집을 방문하며 설득하자 남편들이 마지못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둥게스와리 어머니 대부분은 근처의 친정마을 방문 외에는 여행을 해본 경험이 드물어서 이분들과 함께 8시간이 넘는 버스여행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내심 '둥게스와리 어머니들이 모티하리에 가서 어머니회 활동을 잘 보고 올 수 있을까' 라는 우려보다 '참가자들이 차멀미로 고생을 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우였는지, 멀미약 덕분인지, 차멀미로 고생하는 사람 한 명 없이 잘 이동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12시간이라는 긴 버스여행 끝에 목적지인 모티하리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버스 여행에도 지치지 않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대단한 저력을 보았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어머니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돈된 마을의 풍경과 집집마다 가내 수공업을 하는 모습이 어머니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마을

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농촌처럼 이 마을도 음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요. 음주는 음주로 끝나지 않고 가정폭력으로 또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요.

물론 남편들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은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소작인들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의 반을 땅주인에게 주니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농한기가 오면 소작일거리조차 전혀 없어서 남편들은 돈에 대한 부담, 일거리가 없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게 되지요.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니 남자들은 쉽게 음주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없는 돈으로 살림을 사는 주부들은 술로 세월을 보내는 남편이 미울 수밖에요. 자연스레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주먹까지 오가게 됩니다. 이번에 참가한 둥게스와리 어머니들 대부분이 그렇게 남편의 음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모티하리 사업을 담당하는 분이 진행해 주신 강의 중에 술 중독 퇴치와 가정폭력을 근절한 사례 발표가 어머니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모티하리 마을에도 불가촉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둥게스와리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불가촉천민이 사는 지역은 정부의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런 마을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수록 정부가 학교나 유치원, 병원, 핸드펌프 등의 시설들을 많이 지원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티하리 어머니들이 직접 나선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해요.

술 먹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가난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의 생존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자신과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인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직접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서서 마을 어머니회를 조직했고, 마을에서 술을 추방하면서 동시에 매 맞는 아내를 힘 모아 구해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찾아가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고 끈질기게 마을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해요.

모티하리 마을의 어머니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티하리는 지금도 남편들이 술을 먹고 아내를 구타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마을로 남아있었을지 모릅니다. 모티하리의 마을 역사를 어머니들이 새롭게 만들어 낸 셈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립과 권리 찾기의 활동을 이어 온 모티하리 어머니회 역사를 들으면서, 둥게스와리 어머니회 분들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둥게스와리에서부터 모티하리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던 어두운 얼굴의 한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요.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두 마을의 어머니들이 마치 생사를 같이해 온 오랜 친구 같아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갠지스 강을 지나게 되는데 어머니들이 갠지스 강에서 목욕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 지은 죄가 없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갠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매우 신성한 일로 여기지요. 둥게스와리 어머니들 또한 다시 못 올 수 있는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한다고 하니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가 되어서 싱글벙글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깨끗이 목욕재계를 했지요.

저는 문득, 둥게스와리 어머니회 분들이 이렇게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 둥게스와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것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마을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고, 또 몇몇 마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을 유치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둥게스와리 어머니회가 아직은 마을의 희망이 아니지만 조만간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희망의 보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머니들이 나서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JTS를 통해 실현해 나가는 나의 꿈

JTS는 알라원에 학교를 짓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건물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목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리폰 바랑가이 캡틴이 미오(ROMEO SUELLO)씨를 추천해 주었고, 그렇게 JTS와 인연을 맺은 것이 거의 7년여 째입니다. 그간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로 미오씨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짓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 미오씨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혼자의 힘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지만 JTS를 통해 도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함께하고 글 쓴 이

배명숙 | JTS필리핀 활동가

알라원에 학교를 짓기 전에 JTS는 마을 사람들에게 건물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목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리폰 바랑가이 캡틴이 추천해준 사람이 바로 미오(ROMEO SUELLO)였습니다. 그렇게 JTS와 인연을 맺은 것이 거의 7년여째 입니다.

그동안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로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짓는데 큰 역할을 한 미오와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혼자의 힘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지만 JTS를 통해 도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TS 활동가 미오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학교 건물 짓는 법을 전수하고 왔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은 알라원입니다.

지역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을과 JTS만의 힘으로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망치질, 톱질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프로젝트 이후부터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집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구요.

그 때는 자재를 나르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강을 세 번이나 건너야 했으니까요. 현재의 다리는 학교를 완성한 후에 지은 것이에요. 거리가 멀어도 자재를 나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즐거워했어요. 숲 속에 학교를 짓는 것이 마냥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곳은 미까실리에요. 오후 6시쯤 휴대폰 플래시에 의지해서 처음으로 마을에 들어갔을 땐 누군가가 저를 총으로 쏘려고 했습니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던 거죠. 위험천만했던 순간이었어요.

알라원과는 달리 미까실리 마을은 집들이 흩어져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처음 도착했을 때 집이 세 채 뿐이었고 사방에는 코콘풀(cogon grass, 키가 크게 자라는 억센 풀)만 가득했어요. 조를 짜서 일을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키바웨시에 속하는 지역 일대에서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물록시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시장님이 직접 마을 방문을 왔고, 그쪽으로부터 정부 지원도 어느 정도 받게 되었어요. 지역 정부의 도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1년 넘게 걸리는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 때 일이 잘 진행되어 다행이었지요.

지난 해 12월에는 JTS에서 센동(태풍) 피해자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피곤한 줄 모르고 활동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들을 조직해서 물을 공급하고, 가재도구를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긴급구호때 실리폰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아랫줄 맨 오른쪽이 미오씨입니다.)

길이 질척거리고 사람들은 길에 죽어 있고 악취가 심하게 풍겼어요. 집이 있던 곳에 돌, 자갈만 남아있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울고 멍하게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매우 슬펐습니다. 그런 곳에 JTS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안도했고, 상황이 긴박한 만큼 피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의 꿈은 나의 '가족' 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가족은 물론, 또 하나의 가족과 다름없는 JTS필리핀까지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우선 저의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JTS 필리핀 센터가 자연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 지역의 성공적인 농업 모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민다나오의 마을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데 JTS필리핀과 더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때 한국인 활동가와 필리핀 활동가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에는 JTS활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문화 차이,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지나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온 것이 참 잘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어요.

JTS필리핀은 저의 미래이고, 저에게 정말 큰 의미를 지닌답니다. 앞으로도 JTS필리핀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학교 지을 기회를 갖게 돼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입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한 해 중 가장 큰 명절인 "쫄 츠남" (설날)기간으로 지원했던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열린 학교 준공식에서 만났던 마을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뷰하고 글 쓴 이

박병수 | JTS캄보디아 활동가

3월 20일 신규 파견되어 캄보디아에 도착한 저의 캄보디아JTS 생활은 준공식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24시간 내리 찌는 햇볕과 더위,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먼지는 여기가 캄보디아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2012년 3월 26일과 27일에는 이틀에 걸쳐 2011년에 지원했던 5개 마을의(깔라이사푼, 깔음, 까춧, 양, 모이) 학교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JTS이사장님과 대표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후원해주시는 교민분들과 함께 지원했던 마을의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캄보디아JTS는 정부나 다른 NGO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가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찾아가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먼지 나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조각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차가 가지 못하는 곳은 흙먼지를 온몸으로 안으며 오토바이를 타기까지……

그렇게 도착한 학교에는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학교 준공식을 보기 위해 학교에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눈을,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을을 찾아 올 때의 고생은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했던 지역은 캄보디아의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로 주로 산악지역에서 살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지을 비옥한 땅과 기술이 변변치 않아 경제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소수민족이고 오지에 살다 보니 정부의 지원이 소원한 상태여서 어떤 주민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분들이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JTS에 학교 지원을 요청하고 직접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건축 공정에 참여한 끝에 오늘 이 학교를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주민 중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학교가 완공되었는데 어때요?"

그 분들에게 이렇게 학교를 훌륭하게 지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이들의 흐뭇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좋지요."
"학교 짓는데 얼마나 나와서 도우셨어요?"
"전 여섯 번 정도 나왔지요. 일하느라 바빠도 우리 애들이 다닐 학교라 생각하고 꼭 참석했어요."

"그 동안 일하랴 학교 짓는다고 자원봉사하랴 힘드셨지요?"
"아니요. 우리는 학교가 없어서 못 다녔지만 JTS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 아이들 학교 지을 기회를 줘서 오히려 고마워요."

넉넉하지 않은 생활 형편,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에 자재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학교를 직접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아버님의 환한 표정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고생하신 아버님,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라맛 씨앙! 나마 사야 라니[1]"

1) 인도네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니입니다"를 의미합니다.

라니는 저희 활동가들이 자주 가는 구멍가게 주인집 외동딸입니다. 이곳은 모계 사회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외동아들에 장손이나 다름없는 아이죠. 참 귀엽고 착한 아이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파견 와서 처음 친구가 된 동네 아이이기도 하구요. 라니의 꿈처럼 이 마을이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리고 라니가 마을 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귀여운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인터뷰하고 글 쓴 이

오성근 | JTS인도네시아 활동가

성근: 이름이 뭐예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라니: 제 이름은 라니 아부스티나 파딜라(Rani Abustina Fadilla)예요. 제가 8월에 태어나서 8월이라는 말인 Abustus에서 이름을 따 왔대요. 보통은 모두 저를 라니라고 불러요.

성근: 라니는 몇 살이에요? 누구누구랑 함께 살아요?

라니: 11살이에요. 시바쿠(Sikabu) 초등학교에서 4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학생인 오빠, 그리고 네 살 배기 귀여운 남동생이랑 살아요.

성근: 네 살이면 정말 귀엽겠네요. 라니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요?

라니: 저는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학교 앞 가게에서 나시고렝(볶음밥)으로 아침밥을 먹어요. 수업은 7시 15분부터 10시까지 1교시, 10시 반부터 1시까지 2교시예요.

성근: 와, 수업시간이 아주 기네요? 한 수업이 2시간 반이에요?

라니: 네. 쉬는 시간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 있어요.

성근: 쉬는 시간에는 주로 어떤 거 해요?

라니: 친구들이랑 매점에 가서 사떼(꼬치구이)를 사먹어요. 되게 맛있어요.

성근: 그렇구나. 한 반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같이 공부하나요?

라니: 우리 학교는 조그만한 학교예요. 한 학년에 한 반씩 있어요. 우리 반에는 28명이 있어요. 남자 여자 모두 같은 반이긴 한데 짝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앉아요. 저는 주로 여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성근: 학교에서 어떤 어떤 과목을 배워요?

라니: 저는 인도네시아어, 수학, 자연, 사회, 체육, 종교, 음악, 미술,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 미낭 까바우 족 전통문화를 배워요. 전통문화 수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수학은 좀 싫어요. 어려워요. (웃음)

성근: 학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교복을 입나요?

라니: 네, 저희는 교복이 4개나 있어요. 일반 교복, 무슬림 교복, 체육복, 그리고 토요일에만 입는 교복 이렇게요.

성근: 교복이 네 개나 돼요? 굉장히 많네요. (웃음) 그러면 한 시에 학교 끝나고 나면 주로 뭘 해요?

라니: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먹어요. 엄마 가게 일도 도와주고 빨래랑 설거지도 도와드려요. 요리는 아직 못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를 해요. 엄마 대신 남동생을 봐 줄 때도 있는데 진짜 개구쟁이예요. 네 살이라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같이 놀기는 어렵고 제가 주로 동생을 봐 줘요. (웃음)

성근: 그렇구나! 착한 어린이네,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동생도 봐 주고. 저녁에는 그러면 어떤 걸 해?

라니: 저녁 7시부터는 '멍아지'라는 종교 교육을 받아요. 멍아지를 받을 땐 히잡을 쓰고 옷도 갖춰 입어요. 무슬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알 꾸란' 공부를 하는 거예요. 8시 반까지 해요. 일요일 빼고는 매일 마스지드에 가서 공부해요.

성근: 라니는 뭘 제일 좋아해요?

라니: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하는 거요! 체리 벨레(Cherry Belle, 인도네시아 걸그룹)도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해요. 제목은 잘 기억나질 않지만 한국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해요.

성근: 라니의 꿈은 뭐예요? 그리고 앞으로 마을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니: 제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요. 애들이 귀엽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되려면 대학교 영문학과에 가서 임용시험을 봐야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을에 살아서 참 좋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저는 저희 마을이 발전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 해외활동가들이 나가신다!

3월, 4월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에 있는 JTS 해외사업장에 새 활동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세 나라에 두 명씩, 앞으로 일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쓸 텐데요, JTS를 떠나기 전에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JTS에서 꾸준한 봉사활동과 해외파견자 교육을 받고 떠나는 새내기 활동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낯선 땅에 도착한 활동가들에게 가장 새로운 현지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름 : 오성근
경험 : 스리랑카JTS 에서 6개월 근무
파견날짜 : 3월 20일

Q. 파견국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세계 4위의 인구와 많은 천연자원을 가진 자원 부국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나라예요. 하지만 오랜 세월의 군부독재와 부정부패로 정치가 불안정하고, 아체와 이리안 자야지역에서 분리 독립 요구가 계속되어 내부적인 갈등 또한 심한 나라입니다.

Q. 스리랑카로 파견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다짐이나 목표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솔직히 스리랑카에 갔을 때는 멋모르고 갔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지, 현지 사업장이 어떤 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컸던 것 같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보니 이번에 가는 건 그 때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제 욕심대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새내기 활동가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고 오려구요.^^

Q. 해외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JTS로 오기 전에는 미국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했어요. 영어도 배우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그 때부터 해외봉사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용기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토회 백일출가 때 NGO실습으로 JTS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친구의 권유로 해외 자원봉사에 지원했어요. 이번에 가는 인도네시아는 1년 동안 봉사할 생각인데, 가면 또 어떤 인연으로 얼마나 오래 있을 지 궁금하네요.

이름 : 김선욱
경험 : 한국JTS 3개월 근무
파견날짜 : 4월 11일

이름 : 류미
경험 : 한국JTS 3개월 근무
파견날짜 : 3월 23일

Q. 미얀마에 가보니 어때요?

미얀마는 과거 사회주의의 철저한 고립, 폐쇄주의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했고, 1987년에는 UN이 미얀마를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양곤 시내에도 소층 빌딩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도 제법 되거든요. 외국 자본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생활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커요. 양곤 시내 한복판에서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시장바닥에 자리를 깔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양곤을 벗어난 지역은 사람들의 생활이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Q. 류미씨에게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이 보고, 많이 느끼면서 마음의 크기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곳에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부족한 거 없이 살아왔는지 느끼고 있어요.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이었음을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미얀마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제 삶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Q. 성현씨는 학교짓기나 마을개발 말고,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이름 : 김성현
경험 : 한국JTS 9개월 근무
파견날짜 : 3월 23일

제 개인적인 목표는 자본주의의 모순, 그 중에서도 부의 불균형, 권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JTS에서 일하는 동안 얻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JTS같은 NGO를 만들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단체는 대부분의 NGO처럼 제3세계에 교육지원이라든가 마을개발, 물자지원을 하는 형태는 아니구요. 저는 좀 더 정치외교적인 방향에서, 선진국이나 제3세계 정부, 국제기구에 부의 불균형을 감소시킬 정책을 제시하거나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고, 그런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세부적인 방향은 아직 생각 중이지만, 제 목표가 더 구체화, 현실화 되려면 아무래도 저보다 뛰어난 동료들을 많이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이름 : 박성신
경험 : 한국JTS 3개월 근무
파견날짜 : 3월 19일

Q. 캄보디아에 가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일단 캄보디아에 가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오지마을에 학교를 짓는 일을 합니다. 이미 9개의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가 캄보디아에 추가로 50개 학교를 더 짓는 거예요. 제가 그 잠재 지역들을 찾아 다니며 주민들 스스로가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학교 건물 건축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JTS의 일' 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 이라고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Q. 미국에서 봉사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12살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몇 개월 동안 한국 여행할 때 빼고는 계속 미국에서 살았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철도 없고 가족들한테 걱정만 시키는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누군가를 도우러 가다니, 저조차도 믿기지가 않네요. 전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새 지금 제가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

지금은 무엇보다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항상 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좁은 테두리 안에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느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배부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고마운 줄도 몰랐었거든요. 이제는 나의 배불렀던 삶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일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은 기간인데, 얻고자 하는 것이 있나요?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좋든 나쁘든, 최소한 서른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어른들도 왜 가냐,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살아야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 해외봉사를 다녀온 경험 또한 취직, 결혼만큼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해외 봉사도 다른 걱정 안하고 마음 편히 다녀오려구요. 지금은 무엇보다 이 일이 가장 하고 싶어요.

이름 : 박병수
경험 : 한국JTS 1년근무
파견날짜 : 3월 19일

새 활동가들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세요?
JTS 홈페이지에서 생생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습니다!
JTS 페이스북에 타지에서 고생하는 활동가들이 힘낼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도 올려주세요!
www.facebook.com/jtskorea

이게 가장 신기해!

수십 년 된 고물차도 여기선 몇 천만 원이야. 그래서 도로에는 한국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폐차 직전의 차들이 즐비하지. 버스도 너무 오래돼서 내장(?)이 다 드러나 있고, 심지어 설 때마다 시동이 꺼지는 버스도 있다니깬!

이곳은 거리마다 오토바이가 넘쳐나. 신호는 있으나 마나 하고, 심지어 중앙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모두들 교통질서를 안 지키니, 알아서 조심하는 수 밖에 없어..

보통 무슬림 사회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서부 수마트라는 모계사회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여성의 힘이 강하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론지는 미얀마에서 남자들이 입고 다니는 치마야. 길거리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치마를 펼쳤다 다시 여미는 모습에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지….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당수의 미얀마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얼굴에 노오란 빛깔의 타나카를 발라. 재미있기도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이곳에서 나는 이방인이라, 현지인들이 내 사진을 찍어 가기도 하고, 어딜 가든 그들의 관심대상이 돼. 특히 조사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면 20-30명의 대가족이 우릴 둘러싸고 맞아주는 게 너무 신기해.

이건 꼭 필요해!

책

현지 사정을 더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어학 교재를 좀 더 충분히 가져오면 좋았을텐데. 더군다나 외곽지역에서 활동하면 서점 나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선물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미얀마에서는 이래저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줄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챙겨올걸 그랬어요….

음식

한국 반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옷은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엄마표 반찬은 못 사먹으니까. 해외에 나오니 한국 음식이 더 그리워요!

2012년 5월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JTS 거리모금 캠페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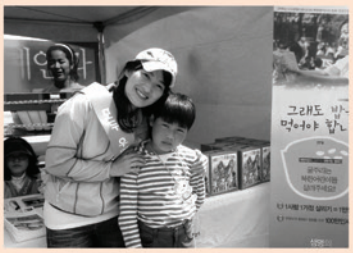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올해 5월도 JTS에서는 아시아 어린이 빈곤퇴치를 위한 거리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80여 곳에서 1,260명이 참여하여 33,479,15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곡곡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를 위해 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과 JTS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통영시 어린이날 행사장 한 가운데서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 빈곤퇴치를 외치다.

Chapter 1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민이라는 초등학생이 와서는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뒤져서는 갖고 있는 동전 1500원 가량을 모두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명정동에서 도남동까지 먼 길을 걸어서 혼자 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재산을 주고서 작은 기름등 하나 사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아난 존자도 끌 수 없었다고 하듯이, 사랑 받는 어린이날,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상민 어린이에게서 함께 모금에 참여했던 봉사자들은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JTS 자원봉사자 강수성님은 하루 쉬는 휴일을 온전히 모금을 위해 보시하셨습니다. 초로의 강수선님이 꼬맹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를 되뇌며 합장하며 웃음짓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이 핑 돕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에 걸친 모금을 마치고 함께 한 이들이 마음나누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잘 하려는 마음, 잘 보이려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한 석소영님의 이야기에 봉사자들의 박수가...

경상대학교 에코캠퍼스 동아리 학생, JTS 자원봉사자 이수남님의 아들까지 청년 8명과 JTS 자원봉사자 등 모두 16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통영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774,52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제3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수 한국JTS 통영

Chapter 2

지난 5월 5일 서울 명동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JTS 방송예술인 모임인 '길벗'이 어린이날을 맞아 거리모금을 진행했거든요. "굶주린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를 테마로 열린 이번 거리모금에는 길벗 구성원과 일반 자원봉사자 등 약 100여 명의 분들이 참여해 뜻 깊은 오후를 보내었답니다. 자, 그 날의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JTS 홍보대사이신 배우 한지민씨는 모금 시간보다 일찍 명동에 도착해 캠페인을 위한 인터뷰와 촬영에 응해주셨어요. 8년째 어린이날 모금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 한지민씨는이 날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달려오셨답니다.

이번 모금의 캠페인 구호인 "굶주린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판넬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서셨어요. 사슴 같은 눈망울의 한지민씨, 정말 아름답죠? 고운 마음씨를 지녀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아름다워지시나 봅니다.

이 날 모금에는한지민씨 외에도 드라마 작가 노희경씨, 개그맨 김병조씨, 배우 배종옥씨, 윤동환씨, 그리고 신인배우 이재우, 이정연씨가 참여해주셨어요.

특히 노희경씨와 김병조씨, 배종옥씨는 한지민씨와 마찬가지로 수 년 전부터 꾸준히 어린이날 모금에 참여해 행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JTS는 늘 든든한 마음이랍니다. 한결같이 정성내 주시는 모습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사전행사가 끝나고 낮 2시, 드디어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민씨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어요. "굶주린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를 외치며 열심히 모금에 임하는 한지민씨.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사람들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모금을 하셨답니다.

노희경씨와 배종옥씨, 윤동환씨, 이재우씨, 이정연씨도 JTS 자원활동가와 함께 부지런히 명동 거리를 누비며 모금을 하셨어요. 브라운관 속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모금에 집중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흔쾌히 지갑을 열어주셨습니다. 빼어난 입담을 가진 김병조씨는 행사 메인 무대를 지키며 재미있는 이야기와 멘트들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열정적으로 진행된 거리모금으로 이 날 총 572만 3260원의 성금이 모였답니다. 한 시간 만에 이렇게 큰 돈이 모이다니, 거리모금의 힘이 굉장하죠? 이 모두가 모금에 참여해 주신 100여 분의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정성 덕분이랍니다.

북한,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JTS는 이 성금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분유와 약, 그리고 학교를 준비하는 데 소중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굶주린 아이들의 먹거리와 아픈 아이들을 위한 약,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둥지가 장만될 거예요. 정말 근사한 일이죠?

JTS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굶주리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려요. 또 따뜻한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JTS 편집부

새 교복과 함께 아이들의 꿈도 예쁘게 피어올랐으면

유정수

올해부터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새 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멋진 베이지색 자켓과 체크무늬 셔츠, 멜빵 치마와 바지가 멋지게 어우러지는 교복입니다. 이 교복을 디자인해 준 분은 디자이너 유정수 씨. 재능기부로 예쁜 교복을 친구들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갓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신인 디자이너로서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어떤 계기, 어떤 마음으로 재능기부를 실천하게 되었던 걸까요? '나눔' 하는 디자이너, 유정수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식지 독자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정수입니다. 2년 전 제 이름을 건 여성복 브랜드 (JUNGSOOYOO)를 런칭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했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어요. 파리국제패턴아카데미, 스튜디오 베르소 파리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소니아리키엘 파리에서 인턴으로 실무디자인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신사동의 아뜰리에에서 제 브랜드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JTS에 재능기부를 하게 되셨나요?

친구 추천으로 '깨달음의 장' 수련 프로그램에 갔다가 JTS 홍보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교복 입은 아이들의 모습과 JTS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가 눈에 들어왔지요.

저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시청 후에 그런 뜻을 말씀드렸더니 며칠 후 JTS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마침 교복을 디자인해 줄 디자이너가 필요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디자인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JTS 활동 가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디자인 방향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입어야하는 교복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가 용이한 컬러를 메인으로 정했고, 심플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에 동색 계열의 컬러대비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인도의 남자 아이들은 옷에 큰 제약이 없는데 반해 고학년의 여자아이들은 가슴을 가리는 스카프인 뚜빠따를 블라우스 위에 착용해야 하고 스커트 길이에도 민감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특징들을 감안해 여학생들의 하복은 상급생과 중급생, 하급생으로 나눠 디자인 했고 현재까지는 중급생과 하급생의 디자인을 우선 채택해서 아이들에게 입혔어요. 상급생의 경우 의견 수렴 기간을 둔 후에 제작될 예정입니다.

원단과 제작 인력도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졌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동 과정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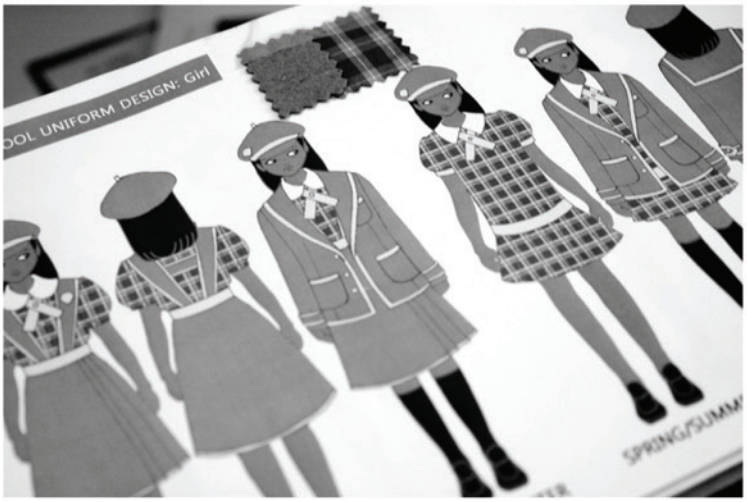
디자인 확정 후 모든 공정은 필리핀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시는 JTS 후원자님들의 도움을 얻어 이루어졌습니다. 첫 샘플 작업은 이메일로 코멘트를 주고 받으며 진행했구요, 구체적인 샘플이 나온 다음에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국제택배로 세 번 샘플을 주고 받으면서 직접 수정 작업을 함께 했어요.

필리핀 현지에서 패턴, 원단선정, 샘플제작, 그리고 메인제작까지 꼼꼼히 전 과정을 처리해주신 덕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자원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웃음) 시즌 컬렉션 준비 기간이랑 겹치게 되면서 시간에 많이 쫓겼거든요.

일과 봉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큰 규모의 일을 맡게 되어서 내



심 긴장도 많이 했구요. 봉사활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 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하는 동안에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 덕분에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복이 전달된 후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교복 입은 아이들의 해맑은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큰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들의 봉사와 정성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저한테 참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 다음에 아이들을 만난다면 무엇을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음…(웃음). 아이들을 정말로 만난다면– 그냥 꼭 안아주고 싶을 거 같아요. 일을 진행하기로 했을 때 JTS 대표님이 해 주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자신의 아이처럼, 그 아이가 입을 옷이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옷이 될 것 같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생각날 때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그 해맑은 눈과 미소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즘 들어, 새로 차려입은 교복보다 먼지투성이의 작은 맨발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불러일으키나 봅니다.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디자이너가 되기를 꿈꿨던 어릴 적 순수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서두름 없이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고 한 벌 한 벌에 저만의 디자인 세계를 그리며 만들어 가다보면 언젠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제가 디자인한 옷이 팔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이 다해 눈을 감게 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 디자인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 마음이 즐겁습니다.

끝으로, 소식지를 읽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주 떠올라요. 그에 비하면 참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는데도 더욱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눔으로써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재능 기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을 조금 더 시간 내서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애된 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주 큰 보람과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배웠구요.

그러니 재능기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거든요. 간단한 시작은 JTS에서 함께해요.

봄과 함께 나눔대축제에 취하다

꽃피는 싱그러운 봄이 찾아온 4월. JTS는 축제 준비로 너무너무 바쁜 봄을 맞았어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공원에서 KBS에서 주최하는 '나눔+대축제'가 열렸거든요. 이 축제에는 JTS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수많은 NGO단체들과 다문화지원단체들이 참가했어요.

JTS부스에서는 두유 시음 이벤트와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포토존, 큰 책 모형 안에 희망의 메시지를 써서 붙이는 체험행사를 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어린 아이부터, 소풍 나온 학생들, 운동하시던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구경하고 좋은 메시지도 남겨주셨어요.

1

2

3

4

1. 책 모형에 정성껏 메시지를 쓰는 어린이. 무릎까지 꿇고 진지하게 쓴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2. '희망을 배달하는 가게' 행사가 진행되던 저희 부스입니다. 첫날이라 조금 서툴렀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님들이 다같이 수고해 주셨어요^^
3. 찰칵찰칵! JTS와 함께 해 준 미소천사^^ 귀여운 꼬마친구들 덕분에 우리 모두 즐거웠어요!
4. 축제 마지막 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당신의 꿈을 써주세요' 페이지에 꿈들이 빼곡히 붙었네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마음이 뿌듯했답니다.

축제 기간에 남겨주신 수많은 희망의 메시지들 중에, 꼬마 친구들이 삐뚤빼뚤 쓴 귀여운 메시지들을 모아봤어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인도 같이 먼 나라의 친구들에게도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특하네요. 하루빨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눔대축제가 열린 3일 동안 JTS는 다른 NGO단체들과도 교류하고 새로운 후원자도 만나며 즐겁게 축제를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들 마음까지 더 풍성해지는 축제였답니다. 내년 나눔대축제에도 꼭 놀러와 주세요!

봄날, 어르신과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김영순 JTS 영남사무국

유난히 비가 많은 4월, 혹시나 하는 우려를 말끔히 내려놓은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직접 캔 쑥을 넣은 쌉쌀한 쑥설기와 갖가지 간식을 꾸러미에 잘 싸서, 두북 어르신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일정이 겹치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어렵게 구성한 인원과 밤새워도 부족했던 준비시간. 조바심 냈던 마음을 툭툭 털고 갑니다.

영남지역에서 모인 15명의 자원 활동가와 새벽 도착해 쉬지도 못하고 다시 출발해야 했던 문경 정토수련원 행자님들이 1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김천 직지사로 향합니다. 역시 새벽 도착하셨던 법륜스님의 자상하고 정겨운 인사 말씀으로 시작된 봄나들이, 벚꽃과 복사꽃이 터질 듯 화려하게 피어나고, 날씨는 쾌청, 그냥 볕 바라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선종의 가르침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직지사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법륜스님의 안내로 대웅전과 비로전, 이곳에서 출가하셨다는 사명대사를 모신 사명각등을 순례하셨습니다. 종무소에서 준비를 잘해주신 덕분에 설법전에서 어르신을 위한 법륜스님의 맞춤 법회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단풍처럼 곱게 나이 들고 늙어가려면 어떤 마음을 내야하는지, 어떤 지혜를 내야할 지, 자식을 도회지로 내보내고, 이제 늙어 힘들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삶을 돌아보게도 되고, 어려움도 나누고 웃다보니, 힘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근 식당에서 즐겁게 산채 한정식, 식사를 마치신 어르신들… 그런데, 아뿔사, 혼잡한 주말, 타고 갈 버스가 주차된 곳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회차할 곳도 없는 거리 사정. 시간이 부족하다고 꼼꼼히 되짚지 못한 답사와 준비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급히 봉고가 투입되어 걸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우선 모셔가고, 다른 분들은 (조금은 긴~) 산책삼아 걸어서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어르신 한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며 걸어오셨습니다.

"어휴 죄송합니다. 이걸 우야꼬 예." "아고, 죽겠다. 너무 힘드네." " 업어드릴까요? 자, 업혀보이소" "아고, 됐다. 무거워서 우찌 업는다고.. 안 할란다." "그래도.. 한번.." " 고마 가자. 좀 잡아만도."

우여곡절 끝에 버스를 타고 사일온천으로 갔습니다. 목욕하고 나오시면 시원하게 한 모금 축이시라고 술과 음료수를 마련하고, 행여 열쇠랑, 신발이랑 잃어버리고 놀라실까봐 꼼꼼하게 지원하는 동안, 행자 열 네 명이 모든 어르신 등을 밀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환하게 웃으며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발그레하니 아기 얼굴 같이 고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홍겨운 시간을 갖고 마지막 서비스로 좀 재롱도 떨어보았습니다. " 아고, 고마워서 우야노." "이렇게 늘 폐를 끼쳐서 미안타." "감사합니다. 스님."

해질 무렵 마을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그저 몸 굳고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미안하고 속상하다시던 어르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마음이실 친정어머니, 시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그러셨겠구나. 그러시겠구나.

그저 하루를 모시는 것인데,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조건을 핑계 삼고 싶어하는 내 밑 마음을 봅니다. 그렇게나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는데, 여유없이 해야할 일로 여겼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지.극.정.성. 그걸 배우는 중입니다. 하나 하나 꼼꼼하게, 지혜롭게,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해지도록 하는 법을 실천하면서 공부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북어르신잔치

·2012년 4월 15일(토)

·직지사 관람 및 사일온천 목욕

·울산 두북 지역 어르신 147명 참가

양평중학교 '나비' 들의 캄보디아 학교짓기 프로젝트

편집부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작고 약하지만 꽃들이 결실을 맺게 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요. 지난 4월 18일, 봄 햇살과 함께 만난 맑고 앳된 얼굴의 양평중학교 학내 동아리 '나눔과 비움(이하 '나비')' 반 학생들도 꼭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양평중학교 학생들은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야 "쑤어쓰데이*, 친구야 학교가자!" 바로 캄보디아의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기특하죠?

프로젝트 및 동아리를 담당하시는 정영수 선생님은 프로젝트를 위해 '100원 정기후원' 을 기획하셨어요. '100원 정기후원' 이란, 제목처럼 하루에 100원씩 후원하는 방식인데요.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은 소액으로 지속적인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선진적인 기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학교를 짓는 데는 보통 큰 돈이 든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자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JTS에

서는, 학교를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학교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 마을에 세워진 학교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의 것이며, 마을 사람들이 주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시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JTS의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교실 한 칸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캄보디아의 오지 마을에 교실 한 칸을 짓기 위해, 지난 2년 간 양평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답니다.

이번에 학교를 지을 곳은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주의 따농(Tanoung) 마을입니다. 따농 마을은 총 76가구, 375명의 작은 마을이며, 주로 캐슈넛과 카사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의 아이들이 모두 74명이지만, 최근에서야 옆 마을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닦였을 만큼 오지여서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양평중학교 학생들 덕분에, 이제는 따농 마을 아이들도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되었네요.

이날 '나비' 반 친구들은 총 모금액 400여만 원을 JTS에 전달하는 한편, 따농 마을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정성껏 쓰기도 했습니다.

또 기쁜 것은 '나비' 반 친구들의 활동이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비' 반 친구들은 이제 북한에 굶주리는 많은 아이들을 위한 모금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나비' 반 친구들의 선행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 행복합니다.

인터뷰 **김종년** 한국 JTS 대전지부
정리 **편집부**

자신을 더 사랑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지난 가을 정토회 불교대학을 입학하였으며, 현재는 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 강연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JTS 후원회원 100명 모집을 목표로 세워 지인들에게 열심히 JTS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평범한 가장이자 시민을 만나보았다.

JTS 후원회원 100명 모집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기가 무엇인가요?

정토회를 알고 수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빚진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위분들에게 그냥 가볍게 권해 보았는데 반응들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시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왕하는거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시작하였습니다.

나눔단체가 많은데 JTS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눔 단체가 많이 있지만 JTS는 100%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다는 말을 듣고 세상을 위해 스스로 원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후원금을 꼭 필요한 곳에 한푼도 누락없이 제대로 전달해 줄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나눔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으로써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 나에게 있는 재주나 남는 시간, 적은 액수의 돈으로 작은 도움이 된다니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 행복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JTS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지금까지처럼 후원자들이 보낸 후원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유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털끝 만큼의 의심 없이 작은 액수의 돈이지만 믿고 후원하고 또 주위 분들에게 권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JTS 홍보대사 한지민입니다.
어린이와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고 힘든 아이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적은 돈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에게는 귀한 쓰임이 된다고 해요.

JTS를 통해 적지만 마음 가득한 후원을 꾸
준히 해주시면 소중한 아이들의 엄마아빠
가 되실 수 있답니다.

JTS의 정기후원자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의 엄마아빠가
되어주시지 않을래요?

저 한지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도소식

1. 3월 6일 홀리(3월 7일 ~ 11일)맞이 행사 진행

수자타아카데미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홀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한 대 어우러져 덕담을 나누고 한 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총 2,000여 명에게 홀리맞이 선물도 증정하였답니다.

2. 3월 12일 ~ 4월 6일 중학생 대상 특별수업 진행

새학기를 앞두고 한 달간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과목은 영어회화, 한국어회화, 컴퓨터이론, 힌디글쓰기였습니다.

3. 수자타 아카데미 기술 중학교 개교

지난 4월 16일 수자타 아카데미 기술 중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전인교육의 하나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된 기술 중학교는 가정형편 상 학업을 중단한 불가촉천민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문 교육과 기술 교육, 인성교육을 병행할 기술 중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입니다.

4. 둥게스와리 어머니회 결성의 발판 마련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6개 마을 어머니들 16명이 어머니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티하리 마을을 답사하였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어머니들은 마을에서 술 퇴치 및 가정 폭력을 근절한 사례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둥게스와리 어머니회 결성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캄보디아소식

필리핀 소식

1.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 마카파리 고등학교 및 다물록 헬스센터 착공식

4월 2일 부키드논주 다물록시에서 마카파리 고등학교 및 다물록 헬스센터 착공식을 했다. 다물록 시장님을 비롯하여 DepEd region 10 교육감 및 부키드논 주 교육감, 코이카 필리핀 부소장이 참가하여 축하해 주었으며 다물록시에서 환영과 감사의 행사로 성대하게 열렸다.

2. 초등학교 준공식 3곳 열리다.

2011년 학교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다물록과 인근 지역 세 곳에서 초등학교 완공을 축하하고 학교를 마을에 이양하는 준공식이 있었다. 4월 2일에는 뮬리타 강변에 위치한 키타스와 발라 초등학교, 4월 3일에는 뙤약볕에 2시간을 걸어야 도착하는 바삭 초등학교에서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캄보디아 소식

1. 깔음준공식

2012년 3월 26일과 27일에는 이틀에 걸쳐 2011년에 지원했던 5개 마을의(깔라이사푼, 깔음, 까촛, 양, 모이) 학교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자리에는 한국에서 JTS이사장님인 법륜스님과 박지나 대표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후원해주시는 교민분들과 함께 지원했던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기타소식

인도네시아 소식

1. 숭에자링 유치원준공식

2012년 4월 12일 숭에자링에서는 박지나대표님, 군수, 면장, 마을지도자 마을주민, 현지 활동가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치원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의 미낭까바우 전통무용 공연과 지역 기관장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깨끗하고 예쁘게 지어져서 마을 주민들이 찬사가 끊이질 않았고 특히, 유치원 놀이터에 놀이 기구들에 그동안 변변한 놀거리가 없던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였습니다.

기타 소식

1. 해외에 신규 활동가 6인 파견

3월 20일 박병수, 박성신 활동가가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었고, 인도네시아에는 오성근, 김선욱, 미얀마에는 김성현, 류미 활동가가 1년동안 해외 자원봉사자로 파견되었습니다.

2. 3월 24일 박주선 활동가 임기 종료, 한국 귀국

지난 3년간 캄보디아 JTS를 이끌었던 박주선 활동가가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 오지를 찾아다니며 학교짓기 사업을 진행했던 박주선 활동가는 마지막 소감으로 열심히 한 만큼 후회없이 떠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해외에서 온 소식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JTS, JTS캠페인 "친환경 수세미를 만들어 팔았어요"

플로리다 잭슨빌JTS에서는 김성순님과 JTS자원봉사자들이 2년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JTS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김치를 담궈 팔아 JTS에 북한어린이 돕기 후원금을 보냈고 올해는 배추값이 비싸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 수세미를 만들어 팔아 보자고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수세미 전용 실을 사서, 인편에 받았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집에서 3주 정도에 걸쳐 160장 정도의 수세미를 짰고, 1장에 5불씩, 2장을 묶어서 10불에 팔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는데, 정말 날개 돋친듯 다 팔려 버렸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수세미 전용 아크릴사라 그런지 반짝반짝거리면서 거품도 잘 나고, 두가지 색을 섞어 짰더니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환경보호도 하고, 사람들에게 환경 홍보도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매년 뜻깊게 보낼 수 있어서 모두들 좋았다고 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할애해 열심히 짜고, 판매에도 힘써 준 회원분들께 참 많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익금 $750는 굶주린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김성순님과 잭슨빌JTS 자원봉사자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내 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잘 전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12년 2월1일-2012년 3월31일

문의전화 02-587-8995

2월 신규회원

북 한 결 연

강효진 P0063314
김남중 P0063289
김민혁 P0063286
김민희 P0063334
김지원 P0063290
김해숙 P0063330
김현경 P0063308
김화석 P0063329
소현섭 P0063310
오나영 P0063313
윤영환 P0063315
윤영훈 P0063272
이다빈 P0063333
이선미 P0063327
이순영 P0063270
이신학 2012001398
임준섭 P0063331
장희재 P0063318
전영필 P0063319
정유진 P0063312
정현우 P0063311
정형 P0063309
조순호 P0063316
황영주 P0063283

인도결핵퇴치

김해숙 P0063330
이다빈 P0063333
이선미 P0063327
장희재 P0063318
전영필 P0063319
조순호 P0063316

인도모자보건

김해숙 P0063330
이다빈 P0063333
이선미 P0063327
장희재 P0063318
전영필 P0063319
조순호 P0063316

인도및 제3세계

김남중 P0063289
김민희 P0063334
김정완 P0063328
김준학 P0063317
김해숙 P0063330
김화석 P0063329
노경희 P0063307
소현섭 P0063310
오나영 P0063313
우길임 2012001240
이기갑 2012001203
이다빈 P0063333
이선미 P0063327
인은아 P0063332
임진주 P0063296
장재문 P0063300
장희재 P0063318
전영필 P0063319
조순호 P0063316

필 리 핀

김해숙 P0063330
이다빈 P0063333
이선미 P0063327
이신학 2012001398
장희재 P0063318
전영필 P0063319
조순호 P0063316

3월 신규회원

북 한 결 연

3161공우회 2012001472
강기수 2012001683
강길봉 2012001619
강민하 2012001624
강성호 2012001654
강진호 2012001730
구옥 2012001509
권나영 2012001515
김경희 2012001628
김기은 2012001679
김미연 2012001446
김미연 2012001513
김새봄 2012001726
김성귀 2012001503
김성열 2012001601
김수연 2012001739
김용정 2012001533
김윤회 2012001736
김지영 2012001711
김현정 2012001456
나지원 2012001541
노종숙 2012001604
도혜민 2012001403
라승남 2012001499
류정미 2012001452
류진우 2012001607
문창수 2012001606
박경희 2012001703
박덕주 2012001598
박수경 2012001709
박아현 2012001653
박영태 2012001447
박정민 2012001419
박정옥 2012001636
박정우 2012001538
박종귀 2012001737
백종필 2012001706
서금여 2012001657
서은실 2012001466
석후성 2012001442
설정진 2012001471
손종옥 2012001727
송아림 2012001749
송자영 2012001682
송호철 2012001669
신득입 2012001514
신명용 2012001475
신미랑 2012001642
신영숙 2012001534
아이애드넷주식회사 2012001710
안준옥 2012001751
안현민 2012001451
양승대 2012001659
엄광호 2012001667
오대환 2012001578
우종헌 2012001662
우혜정 2012001417
윤덕희 2012001440
윤소영 2012001627
이경숙 2012001519
이경애 2012001521
이경주 2012001518
이경희 2012001729
이남희 2012001570
이명숙 2012001401
이미정 2012001421
이민정 2012001436
이상호 2012001468
이연희 2012001418
이영아 2012001692
이영화 2012001658
이완석 2012001716
이유영 2012001640
이재선 2012001605
이정은 2012001458
이정환 2012001744
이제희 2012001420
이주연 2012001691
이중현 2012001469
이지구 2012001596
이지선 2012001474
이창호 2012001702
이철우 2012001678
이현나 2012001556
이혜수 2012001429
이혜운 2012001470
이혜원 2012001660
임경민 2012001670
임현정 2012001614
장재운 2012001426
장정인 2012001616
전용재 2012001438
정민숙 2012001641
정민지 2012001545
정연서 2012001603
정영숙 2012001748
정재호 2012001599
조규성 2012001439
조규영 2012001688
주기훈 2012001686
주은광 2012001459
지현스님 2012001668
진혜영 2012001685
천인성 2012001476
최근영 2012001526
최명수 2012001728
최민경 2012001613
최병길 2012001441
최승희 2012001587
최연수 2012001516
최연주 2012001501
최현성 2012001713
하정문 2012001750
하주현 2012001435
한민영 2012001540
함미경 2012001413
허남운 2012001705
홍연정 2012001586
홍일표 2012001635
홍지현 2012001681
황순심 2012001701
황현수 2012001492

인도결핵퇴치

권나영 2012001515
김기은 2012001679
김미연 2012001446
김민정 2012001513
김새봄 2012001726
김성열 2012001601
김수연 2012001739
김용정 2012001533
김지영 2012001711
김현정 2012001456
김혜영 2012001399
도혜민 2012001403
류진우 2012001607
박민기 2012001715
박수경 2012001709
박정민 2012001419
박정옥 2012001636
박정우 2012001538
박종귀 2012001737
박종서 2012001431
박중근 2012001631
석후성 2012001442
손종옥 2012001727
송아림 2012001749
신미랑 2012001642
신민경 2012001467

아이애드넷주식회사 2012001710
유혜지 2012001742
이경숙 2012001519
이연희 2012001418
이혜원 2012001660
전용재 2012001438
정송이 2012001602
정지웅 2012001400
채성묵 2012001633
최성락 2012001520
최승희 2012001587
최연주 2012001501
홍일표 2012001635
황현수 2012001492

인도모자보건

가나연 2012001648
권나영 2012001515
김기은 2012001679
김동민 2012001656
김미연 2012001446
김민정 2012001513
김성열 2012001601
김수연 2012001739
김영숙 2012001433
김용정 2012001533
김준희 2012001544
김지영 2012001711
김한솔 2012001746
김현정 2012001456
나윤주 2012001542
나지원 2012001541
류진우 2012001607
문창수 2012001606
박란 2012001555
박미란 2012001632
박아현 2012001653
박영태 2012001447
박정민 2012001419
박정옥 2012001636
박종귀 2012001737
서은실 2012001466
석후성 2012001442
설정진 2012001471
손종옥 2012001727
신미랑 2012001642
신민경 2012001467
아이애드넷주식회사 2012001710
우혜정 2012001417
이경민 2012001597
이경숙 2012001519
이경애 2012001521
이명숙 2012001401
이미란 2012001473
이민정 2012001436
이봉숙 2012001493
이승연 2012001704
이연희 2012001418
이지구 2012001596
이창호 2012001702
이혜수 2012001429
이혜원 2012001660
이홍철 2012001517
정미영 2012001455
정민숙 2012001641
정송이 2012001602
정지웅 2012001400
주은광 2012001459
지정림 2012001425
지현스님 2012001668
최성락 2012001520
최승희 2012001587
최정옥 2012001422
최현성 2012001713
허남운 2012001705
홍지현 2012001681

인도및 제3세계

3161공우회 2012001472
가나연 2012001648
강민하 2012001624
강성호 2012001654
권나영 2012001515
김경희 2012001628
김균배 2012001735
김기은 2012001679
김민정 2012001513
김민종 2012001535
김성열 2012001601
김수진 2012001463
김영조 2012001722
김용정 2012001533
김재경 2012001402
김정호 2012001625
김종선 2012001437
김준희 2012001544
김지영 2012001711
김현정 2012001456
김화신 2012001549
류은실 2012001434
류정미 2012001452
류진우 2012001607
문창수 2012001606
박란 2012001555
박민기 2012001715
박병두 2012001629
박성자 2012001530
박성희 2012001430
박수경 2012001709
박영태 2012001447
박유신 2012001693
박정옥 2012001636
박종귀 2012001737
박종문 2012001443
배민규 2012001622
부지영 2012001690
서은실 2012001466
석후성 2012001442
설정진 2012001471
손은희 2012001638
손종옥 2012001727
송문경 2012001454
송문성 2012001571
신득입 2012001514
신미랑 2012001642
아이애드넷주식회사 2012001710
안준옥 2012001751
양승관 2012001527
양승돈 2012001428
오대환 2012001578
우종헌 2012001662
유은지 2012001741
유혜지 2012001742
윤미경 2012001572
윤소영 2012001627
이경민 2012001597
이경숙 2012001519
이경애 2012001521
이동진 2012001615
이미란 2012001473
이복승 2012001557
이상호 2012001468
이승연 2012001704
이연희 2012001418
이영석 2012001714
이완석 2012001716
이재명 2012001639
이재선 2012001605
이정민 2012001568
이정환 2012001744
이제희 2012001420
이주연 2012001691
이창호 2012001702
이춘림 2012001747
이혜수 2012001429
이혜원 2012001660
이혜진 2012001510
임경민 2012001670
임세희 2012001623
장재운 2012001426
장정인 2012001616
전용재 2012001438
정민숙 2012001641
정송이 2012001602
정영숙 2012001748
조규성 2012001439
진영희 2012001600
천인성 2012001476
최민경 2012001613
최제익 2012001445
최화복 2012001553
한민영 2012001540
한민주 2012001724
해밀한의원 2012001554
홍연정 2012001586
홍일표 2012001635
홍지현 2012001681
황현수 2012001492

필 리 핀

권나영 2012001515
김민정 2012001513
김새봄 2012001726
김성식 2012001717
김성열 2012001601
김용정 2012001533
김지영 2012001711
김현정 2012001456
류진우 2012001607
박성희 2012001430
박정옥 2012001636
박현동 2012001502
석후성 2012001442
송아림 2012001749
신득입 2012001514
신미랑 2012001642
아이애드넷주식회사 2012001710
이경숙 2012001519
이연희 2012001418
이제희 2012001420
이창호 2012001702
이혜원 2012001660
전순옥 2012001650
전용재 2012001438
정송이 2012001602
차광자 2012001630
채성묵 2012001633
한승철 2012001411
해밀한의원 2012001554
홍우선 2012001432
황현수 2012001492

특별후원금

2012년 2월1일-2012년 3월31일

문의전화 02-587-8995

2월 특별후원금

결 핵 퇴 치

김성수	30,000
노을순	1,000,000
이선미	90,000
이옥선	20,000
이용직	200,000
이용희	500,000
천명희	150,000

북 한 결 연

강연숙	100,000
강은진	100,000
강지은	20,000
고일균	10,000
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	300,000
구순남	300,000
구영희	1,000,000
권가윤	100,000
권영자	80,000
권우근	25,000
권현숙	100,000
권현숙	15,970
권형숙	100,000
권효임	50,000
기유림	200,000
기철민	93,440
길효진	100,000
김기순	10,000
김낙춘	104,000
김도영	300,000
김동원	1,000,000
김두일	10,000
김민경	100,000
김민경-1	100,000
김병걸	60,000
김병수	20,000
김복분	70,000
김선호	180,000
김성남	150,000
김아현	10,000
김영구	6,400
김영길	100,000
김영림	30,000
김영범	130,000
김영안	3,500,000
김영주	29,360
김용동	100,000
김은남	10,000
김의찬	50,000
김인환	100,000
김재춘	100,000
김주용	1,000,000
김진섭	265,000
김창균	200,000
김태순	60,000
김행란	10,000
김호상	100,000
김홍임	30,000
김홍호(효공)	30,000
내원암(재문스님)	1,000,000
노을순	1,000,000
문금숙	60,000
문일곤	200,000
민평협	270,000
박갑규	500,000
박병락	15,000
박병수	10,000
박성준	100,000
박영옥	141,100
박영자	20,000
박영화	100,000
박예진	20,000
박옥경	390,000
박준자	100,000
박형진	30,000
방콕법당	447,400
백남권	20,000
백미나	10,000
백성애	107,890
백승윤	100,000
서미진	300,000
성정옥	100,000
손규리	10,000
손재심	80,000
송순애	300,000
신동남	100,000
신성우	100,000
심유현	5,000,000
심지혜	10,000
안성숙	20,500
양민주	3,000
양수지	10,000
양윤석	150,000
엄애순	30,750
여승은	20,000
여승진	20,000
오서준	200,000
오윤숙	70,000
오인숙	100,000
유선겸	11,000
유지홍	30,000
유현아	20,000
윤세현	320,000
윤영미	300,000
윤정상	100,000
윤화자	60,000
이강호	7,000
이경희	5,000,000
이동호	15,000
이명세	15,000
이병희	10,000
이상태	20,000
이선미	60,000
이성화	15,000
이승화	100,000
이실	77,320
이영주	1,000,000
이옥선	40,000
이옥현	130,000
이원영	15,000
이위선	217,200
이유미	30,000
이은상	10,000
이은영	10,000
이은희	16,210
이정민	20,000
이주형	56,000
이찬희	5,000
이현재	1,000,000
이현재	10,000
이현정	50,000
이혜경	15,000
이혜진	25,000
임수정	10,000
임수현	50,000
임순화	37,330
임영칠영가극락왕생	30,000
임재찬	20,000
임현정	10,000
장봉숙	30,000
장석우	25,000
장인양	5,000,000
장준영	100,000
재일코리아청년연합	1,052,856
전현실	20,000
정선곤	20,000
정연지	70,000
조용학	25,000
조정순	50,000
조춘희	15,180
주윤하	30,000
주종은	15,000
지원준	30,000
채성진	10,000
천일결사과제	100,000
청원스님	25,000
최근창	50,000
최순호	800,000
최영순	100,000
최인선	10,000
최정희	100,000
하지민	50,000
한경이	300,000
한보석	50,000
한희진	1,000,000
허수빈	40,000
허영미	300,000
허향미	1,700,000
홍선표	20,000
홍성관	500,000
홍순연	100,000
황윤원	100,000
황혜림	1,000,000

인 도 모 자 보 건

곽봉수	100,000
김영숙	100,000
김진석	170,000
덕불동문회	50,000
박금자	100,000
박미희기연예진	20,000
이근오	30,000
이선미	10,000
이옥선	20,000
이찬	30,000
조원희	10,000
천윤미	30,000

인도 및 기타후원

강천근	100,000
강태훈	10,000
권나연	50,000
김경희	30,000
김기용	33,000
김기태	10,000
김기협	20,000
김나영	50,000
김미선	80,000
김미정	150,000
김병순	15,000
김병주	10,000
김성길	30,000
김승연	100,000
김연수	1,000,000
김연옥	38,000
김용규	174,330
김은남	50,000
김은미	20,000
김재관	30,000
김정대	200,000
김정호	100,000
김종희	100,000
김창균	150,420
김천수	5,000
김태욱	100,000
김향숙	30,000
김현순	10,000
노을순	1,000,000
노홍균	10,000
대연혁신지구 희림감리	
단	121,250
덕불동문회	100,000
마음	100,000
문의숙	88,600
박덕범	300,000
박미애	10,000
박상호	50,000
박성희	20,000
박소현	20,000
박수정	50,000
박예진	200,000
박옥경	330,000
박이우. 박이진 백일기념	1,000,000
박종윤영가극락왕생기원	100,000
박지현	10,000
불암사	6,451,354
사랑.감사	10,000
사랑합니다	10,000
상훈스님	100,000
서광석	200,000
서선옥	30,000
서울은빛초2누리	139,000
손영훈	100,000
신한카드	90,340
아신	200,000
양동산	100,000
엠아이(주)	614,250
오세욱	38,000
오윤아	22,260

우혜민	17,000	잔건고	100,000	이정화	10,000
유영자	10,000	최영지	50,000	이주은	30,000
윤명옥	100,000	최은혜	100,000	전경필	10,000
윤영주	50,000	하석정	100,000	전재덕	10,000
윤영희	100,000	하은이 이사원만성취		정운식 생일축원	50,000
윤은옥	30,000		50,000	조민수	30,820
윤화자	100,000	하지민	50,000	최재경	10,000
윤효진	50,000	한경희	20,000	하재남	50,000
이선미	60,000	한보란	30,000		
이숙기	200,000	한양순	30,000	**북 한 결 연**	
이승하	10,000	해피빈	3,927,700	강규홍	50,000
이영미	5,000,000	홍선표	25,000	강명희	30,000
이옥선	20,000	화정(박화정)	30,000	강천근	100,000
이윤희	100,000	황순옥	50,000	공연표	33,950
이은상	10,000	황용순	100,000	구명숙	850,000
이현정	10,000	황정원	40,000	권용주	300,000
임병권	1,000,000	황지원	35,000	권정화	100,000
잠실중학교	200,000	후원합니다.	100,000	권효주	30,000
장경숙	30,000	Sook HEE MENG		김경미	50,000
장영숙	50,000		124,008	김경미	41,000
장우진	40,000			김경화	100,000
장현석	30,000	**필 리 핀**		김문희	50,000
장희철	10,000	김선호	90,000	김민정	30,000
전영근	100,000	박옥경	430,000	김민제	30,000
전현수	50,000	배연이영가극락왕생기원		김선호	60,000
정계택	500,000		100,000	김성권	20,000
정기선	10,000	안지선	6,000	김성남	120,000
정성채,정성곤,정환명,박		이선미	50,000	김성희	10,000
풍자	120,000	이윤이	10,000	김여원	36,000
정암	30,000	이주형	30,000	김은	70,000
정윤정	333,000	하재남	200,000	김은주	50,000
정일상	100,000	홍성관	500,000	김인숙	100,000
정정숙	10,000			김주영	100,000
정정윤	200,000	**3월 특별후원금**		김진아	25,000
정진희	100,000	**결 핵 퇴 치**		김혜연	20,000
정필연	20,000	김경화	100,000	김혜영-남편기일	50,000
조경아	25,420	김종택	30,000	김혜영-큰아이생일	
조인숙	140,000	김지현	20,000		30,000
조종엽	20,000	김혜영	50,000	나영자-아들 장학금	
조철근	10,000	서정희	10,000		30,000
조현숙	12,000	서태성	10,000	나희원	50,000
주용	30,000	안창오외조부제사보시		노샛별	100,000
죽사신도일동	1,100,000		50,000	목인방(김홍임)	50,000

박남진	200,000	이순이	1,000,000	한승희	100,000
박미희	20,000	이순진	75,000	홍동욱	100,000
박석하	100,000	이승민	500,000	홍성관	500,000
박성숙	100,000	이원형	10,000	홍희경	20,000
박성준	160,000	이위선	200,000	황순옥	50,000
박은경	100,000	이은미	100,000		
박재은	150,000	이정화	50,000	**인 도 모 자 보 건**	
배연이, 박종윤영가 극락		이주은	100,000	강규홍	20,000
왕생	200,000	이창주	500,000	권효주	150,000
서선영	77,000	이철우	10,000	김경화	100,000
서장민	100,000	이해숙	300,000	김남태	300,000
서정희	50,000	이향숙	21,200	김문수	20,000
서태성	10,000	이호준	100,000	김성희	10,000
서현진	20,000	임재찬	10,000	김지현	30,000
서형원	1,500,000	장기화영가왕생극락발원		김진석	807,760
선망부모님과 조상님들			50,000	김한솔	230,000
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		장서희	20,000	김혜영	5,000
다.	1,000,000	장성배	50,000	김혜영-큰 아이 생일축	
손자 박민기 생일축하		장태식	100,000	원	20,000
	50,000	장형하	365,000	김혜진	5,000
송임숙	100,000	전경필	10,000	배순기	100,000
송호철	100,000	전재덕	10,000	서정희	20,000
신데렐라언니 갤러리		정대봉	20,000	서태성	10,000
	305,130	정선우	10,000	신동현	102,000
신세계초교7회동창회		정애선	10,000	이정화	10,000
	500,000	정유선	50,000	이주은	30,000
안효호	1,000,000	정지윤생일축하		임현우	50,000
양동산	50,000		1,000,000	전경필	10,000
오미령	671,040	정지혜	10,000	전재덕	10,000
외할머니(한선순영가),할		정창래-아버님쾌유발원		최성미	5,000
아버지,할머니,아버지(허			500,000		
옥) 외 선망 조상영가 및		정혜정	100,000	**인도및 제3세계**	
태아영가 극락왕생발원		조미현	30,000	강종호	100,000
합니다.	500,000	진혜영	10,000	강희영	1,000,000
우정민	100,000	최민서	50,000	구동희	500,000
유순임	30,000	최상원영가축원		구민지	5,000
유재한	100,000		1,000,000	권효주	20,000
유지웅	10,000	최성미	5,000	김경화	100,000
윤치은	1,000,000	최성자	200,000	김광숙	10,000
이대명부친왕생극락발원		최종혁	100,000	김나영	5,000
	100,000	최진경	20,000	김미정	100,000
이성림	10,000	태광식	1,000,000	김민애	10,000
이소희	100,000	하재남	50,000	김수연	20,000

미국 JTS 후원금

2012년 3월1일–2012년 3월31일

김수현	1,000,000
김용훈	104,300
김익현	30,000
김인숙	100,000
김지현	20,000
김태욱	10,000
김현정	10,000
김혜연	20,000
나용학	5,000
나희원	50,000
덕불동문회	50,000
박경자	150,000
박덕범	50,000
박만수	50,000
박분남	30,000
박성자	100,000
박원숙(파리도반)	135,000
박정선	200,000
박지열	500,000
배명숙	100,000
서정희	20,000
서태성	10,000
설갑봉	10,000
신동현	50,000
신한587741562	40,000
신한카드	34,057
심미향	100,000
심예인	100,000
심현오	100,000
양승종	500,000
영가황종택조	100,000
영주동부초	270,000
오세을	3,000,000
오유미	100,000
원오사장학금	200,000
유순임	30,000
유승자	100,000
유여래심	1,000,000
유영자	10,000
유재연	100,000
윤귀예	50,000
윤민자	100,000,000
윤준호 윤준기 생일축원	500,000
이대명부친왕생극락발원	100,000
이동진	200,000
이명자	100,000
이삼순	26,900
이성헌	200,000
이영란	37,000
이영숙	43,560
이정화	20,000
이주은	30,000
임권우 생일축하	50,000
임효진	60,000
장서희	30,000
장여진조준수	50,000
장인양	100,000
장택수	50,000
전경필	10,000
전명선	10,000
전재덕	10,000
정암	250,000
정유승첫돌감사합니다.	100,000
정윤정	10,000
정진순	830,000
제이에프씨	530,000
조경신	100,000
조연옥	60,000
최명옥	1,000,000
하재철	100,000
한정희	500,000
함민희	39,000
허심	180,000
혜륜스님	500,000
황지영	10,000
후원합니다.	200,000

필 리 핀

김경화	100,000
김동우	10,000
김선호	30,000
서태성	10,000
이명세	10,000
이정화	10,000
전경필	10,000
전재덕	10,000
하은이이사발원	50,000
하재남	50,000
홍우선	10,000

긴 급 구 호

고문순	1,000
김성현	50,000
김영애	30,000
김정임	21,000
신성우	30,000
윤상영	1,000
임현정	10,000
정지연	10,000

Ray Gregoire	$100
김선화	$100
김원태	$30
김윤진	$100
김윤진	$100
마이클 양	$31
무주상	$180
박경배	$120
박숙현	$100
박은선	$100
배상옥	$30
백은영	$250
송호성	$60
양기석	$200
오근영	$50
유정온	$201
이귀염	$100
이동근	$100
이동영	$300
이명남	$50
이재혁	$50
이정인	$100
이학원	$610
임근희	$50
임선희	$20
정제니	$200
최경숙	$30
최광석	$50
최만성	$20
최인란	$100
한규희	$100
한해선&한연홍	$100
Dianne M&	$80
Hui Yong Ratliff	$30
Hyun S Park	$80
LA 정토회	$1,413.80
YamYam Icecream 모금함	$200

나눔저금통 현황

2011년 02월 01일 ~ 2012년 03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5

경주

김영애 24,510

광주

김희순 20,790 박인순 16,810 운림중최서원 23,100 채연희 34,460 한봉길 40,580

구미

구미드림마트 15,840 구미홈플러스 24,280 무명 20,150 이수미 14,090 이수현 27,520 이정인(구영란) 46,630

대구

구미이마트마일리지 5,902 권오채,백명숙 35,150 길은미 54,910 김금란 18,800 김동철14,640 김하연 32,030 무명 25,550 무명 19,200 박수정 49,350 박지민 21,630 박지상22,300 방정희 35,910 신미란 30,300 신영애 56,690 신영애 46,130 안선영 28,850 윤경화38,160 윤성원 55,020 이영선 15,940 이윤빈 28,370 이재빈 61,650 이재웅 65,370 임금실62,500 임금실 44,430 임은숙 29,390 장선욱 68,260 전예나 22,380 정용수 39,390 차용백2개 118,120 최정은 19,410 최진연 66,180 희열광 55,100

대전

강현희 16,940 금송농원 285,760 김국희 29,100 김기일 35,750 김낙춘 28,120 박선희 42,530 박혜정 16,990 법당 32,590 우심이 18,490 윤경숙 12,150 이금봉 47,210 이순조 11,570 이정식 43,570 이제상 19,040 이준영,이보영 27,570 중부사무국 43,700 태한성 16,500

동래

강다영 15,320 강성진 74,070 김례 30,630 김현우 20,440 무명 35,690 무명 13,010 무명 19,530 무명 62,420 무명 99,600 무명 2,460 박윤희 28,000 사상현대모비스 17,880 성영애 9,750 이미순 17,300 이채윤 21,340 정서희 30,540 조순이 189,650 황혜욱 55,540

마산

가야문고 28,520 강윤진 100,600 거제경전반 37,000 거제원마트 66,720 거제원마트 21,550 거제원마트 47,600 거제초등6-1 15,140 거제초등6-3 19,650 거제초등6-4 77,690 경대더페이스샵 34,380 골드마트 43,070 공재호 1,000 곽채윤 1,070 김광현 10 김상운 140 김종민(함안) 24,510 김지영 2,850 김지원 540 남원진 50 무명 330,150 무명 259,320 무명 32,910 무명 45,300 무명 39,230 무명 270,150 박말순 41,120 박명숙 50,620 박민규 100 박상현 250 박우진 5,000 박은주 24,740 박정민 5,350 방글이(코오롱) 11,810 손정규 300 안동한 1,200 안준영 3,100 연우연호 7,020 옥포수협 51,740 외환주화환전 34,510 우리마트 24,040 우리마트(코오롱) 17,990 윤승현 14,030 이건호 2,230 이동헌 740 이미인 41,120 이석환 480 이창헌 420 이홍재 25,730 이홍재 2,730 장성자 40,000 정민영 18,130 정송민 7,010 정순관 30 조미현 5,000 최정환 950 코오롱 44,020 팔용중 137,250 황지웅 5,000

부산

강민창 3,610 김애영 42,320 김애영 29,100 김정윤 8,940 김종덕 19,670 무명 1,470 무명29,920 무명 18,180 무명 3,870 무명 4,740 무명 3,070 무명 2,440 무명 2,330 무명 3,220 보리수동산 17,600 보부상마트 9,780 보부상마트 21,400 신정인 8,820 양유림 2,210 윤여진 49,560 이삼님 4,860 이영주 10,260 이은숙 62,600 장우영 40,190 장우영72,400 장우영 9,200

서울

93차일깨 18,050 93차일깨 35,480 강병창 31,330 강원칠 29,160 강은주 30,940 구현수34,000 국찬 2,640 권민아 9,040 김명희 15,590 김민후,정성자 251,700 김보경 3,550 김승일 3,550 김애경 23,840 김애경 34,850 김영인 8,350 김용하 27,070 김유빈 47,130 김은솔 2,400 김의수 1,740 김잔디 29,370 김준서 154,360 김준형 4,250 김지현 8,900 김지혜 4,600 김진호 15,060 김행란 31,390 김현서 169,600 김현서 21,500 김현진 20,000 노승민 3,250 노승준 2,800 무명 2,660 무명 23,650 무명 13,010 무명 14,140 무명 15,550 무명 7,640 무명 21,980 무명 11,720 무명 30,930 무명 17,250 무명 2,850 무명 29,810 무명 14,020 무명 22,140 무명 47,000 무명 6,800 무명 56,030 무명 30,580 무명 14,610 무명 30,520 무명 66,740 무명 60,840 무명 36,020 무명 26,240 무명 25,310 무명 26,750 무명 20,870 무명 20,790 무명 63,440 무명 115,670 무명 4,630 문현숙 68,970 문현숙 40,390 민철 7,140 박정선 5,830 박종민 33,950 박지영 24,310 박창아 9,650 박현정 19,050 상은 6,310 서미화 38,700 성창 8,390 세윤 1,000 송문재 36,810 심유현 36,440 심준용(연수고등학교) 26,740 양경호 6,850 양서중학교7개 66,990 (3-1반여학생5,640 3-5반여자일동 15,850 3-6반 15,200 3-6반남학생일동 4,950 3-7반 8,370 3-7반서윤 9,480 3-8반 7,500) 오현석 10,710 우찬 3,650 우현지 2,500 우희숙 20,210 이가영2,080 이기찬 3,150 이남주 9,250 이남훈 2,100 이벽주 18,440 이상민 2,650 이수안 1,510 이수정 3,050 이슬기 28,440 이장현 18,500 이준호,이윤주 67,520 이진호(서울 신서중) 26,190 이한별 1,450 이한준 5,720 이한준 7,920 이현숙 32,940 이혜원 13,440 임성우1,590 임현지 1,500 재욱 11,490 전영숙 11,200 전인숙 45,630 정동희 20,000 정두환16,970 정민 4,590 정민서,주연,여

진 26,210 정선희 4,810 정선희 33,090 정승우 39,120 정진혁 5,750 정후곤 53,320 조경은 6,670 조기봉 37,350 종환 6,830 진수 5,200 최행규71,860 최현숙 28,910 하경서 8,270 하윤서,윤예지,구민주 16,350 한비 5,840 한성규 6,250 함여준 4,910 허수진 38,320 홍도연 27,450 황정환 4,400 황현지 9,340 G/S25 서초유원점 31,970 G/S구로동양 17,120 G/S구로동양 15,730

울산

권현숙 15,970 김기훈 27,750 김선옥 13,290 김영구 6,400 김영주 29,360 김일윤 38,810 김지영 6,690 대호차량등록소 6,370 돈베돈가 24,670 무명 18,270 손승욱 90,550 신인숙 35,500 안성숙 20,500 여승은 151,420 여승진 109,640 이능수 32,830 이송경 20,030 이유준 16,640 이은희 16,210 이혜준 18,310 임순화 37,330 전춘우 46,930 정옥경 51,590 정인호 14,870 정정영 33,890 조춘희 15,180 천곡중1-6 5,300 천곡중1-6 9,890 천곡중1-6 37,300 현대하이스코 152,230 화장품프라자 108,080 황기영 24,650

제천

김정헌 24,590 무명 25,500 법당 71,800 손상용 14,000 손상용 82,350 연호순 26,180 우수빈 24,640 유동욱 25,320 유현욱 13,000 유현욱 36,460 장용재 11,490 제천고등학교 56,630 최정윤 9,220 최정훈 79,180 황덕민 36,740

창원

김현지 44,630 무명 34,150 반송한마음공동체 48,500 신순이 42,080 정말순 35,730 한시원(동산초등) 23,630

청주

김동현 31,450 김명중 33,690 김민석 15,890 김용경 47,000 김은성 27,540 대신의원(이황휘) 61,160 대신의원(이황휘) 39,780 박진옥(감로향) 23,520 신미순 28,800 아하과학교실 25,850 윤귀예 45,800 윤동수 29,700 이은선 66,680 장정운 16,040 정선희 26,030 최다은 13,260 최현우 7,200 황보은 25,300

포항

김경주 26,510 김해진 50,260 무명 62,940

해운대

김나경,박정아 3,180 김서영 24,530 김연금 42,780 김지연 23,560 김해경 15,220 무명 16,910 무명 26,200 박선희 45,230 박유선 27,520 장순자 27,470 정남주 22,470 정지희 28,740 조동현 19,300

기타

거제수협옥수동지점 63,940 고아농업협동조합 19,950 고아농협항곡지점 13,010 구로구청직원일동 50,000 김광제 73,420 김다빈 10,800 김도현 24,900 김미선 35,600 김선기 32,060 김우영 19,700 김하림 33,820 김해경(선단큰집설렁탕) 151,950 동곡초4-2 108,070 동곡초4-2반 212,090 문정숙 55,710 문향란 25,830 미래에셋증권동울 15,370 민선미18,810 박정희 29,570 성훤 39,930 손광식 11,300 손동조 31,930 수원무명3개 60,330 아신 154,250 여수김경수 30,480 오희창 34,600 운암고등학교2학년 33,890 이민아 13,650 이선애 52,340 이세훈 50,340 이수민 19,100 이정민 5,850 인천함민희 39,000 일깨저금통923,000 일깨저금통 387,000 임경태 10,870 임정우 15,050 전정순 27,500 진건고 54,910 창도43최은아 4,350 평택중앙동우체국 20,000 kb신사동지점 17,000

| 거리 모금 현황 |

2012년 02월 01일부터 2012년 03월 31일까지

대구 3,890,271 대전 36,000 대전부사 146,700 대전중부사무국 67,000 동래 61,910 마산 2,268,240 분당청소년거리모금 69,620 상명대부속여고1-4 190,000 서울 1,455,622 서포터즈모금 845,106 수원 190,160 울산 177,120 이병현(열린법회) 835,420 이화여대짜이집 885,280 인천 270,310 입재식시모금355루피 8,076 충주 36,350 평택 293,790 포항 196,950 해운대 279,740 환희사모금 547,76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셨습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긴급구호**

_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_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JTS희망나누미 파페와 포포입니다